여수시, 공직자 인구변화 대응 역량 강화 나서

구본진 강사 초청 '인구변화의 이해와 미래 전략' 강연

여수시(시장 서영학)는 지난 6일 시청 문화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6년 인구위기 대응 직원 인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인구 환경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사)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 구본진 강사가 맡아 '인구변화의 이해와 미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진행했다. 구 강사는 저출산·고령화의 영향과 미래 인구구조 변화, 지방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전략 등을 설명했다.

특히, 지속적인 청년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의 원인,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지역 불균형 문제를 짚어보고,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구성의 변화가 시민의 삶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는 민선 9기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청년교육국을 신설하고, 인구·청년·교육 분야를 연계한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과 교육환경 개선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구정책을 시정 전반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모든 정책과 사업에 인구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공직자들의 인구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고,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구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실 진단과 미래를 내다보는 인구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주거·일자리·교육·생활환경 등 생활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인구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인구변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구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인구문제를 단순한 출산율 저하가 아닌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과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공직자들이 인구변화에 따른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데 의미를 더했다.

시는 앞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발굴에 힘쓸 예정이다. 청년층의 유출을 막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주거·일자리·교육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이 머물고 싶은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이유빈 기자



공직자들의 인구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여수 시청 제공

순천시, 오는 10일부터 폐농약 집중 수거 기간 운영

순천시(시장 손훈모)는 농가와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농약과 유효기간이 지난 농약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폐농약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 수거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이며, 수거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더새롬에서 진행된다.

폐농약은 일반 생활폐기물과 함께 버리거나 하수구 등에 흘려보낼 경우 토양과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한 처리를 위해 집중 수거 기간에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다만, 농약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한 폐농약 등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가정과 농가에서 보관 중인 유효기간이 지난 농약과 사용 후 남은 농약을 이번 수거 기간에 안전하게 처리하고, 토양과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해 시민과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광양시, 백운산 자락 붉게 물든 달콤한 유혹…광양미식여행

가을이 깊어질수록 광양 백운산 자락에는 감이 붉게 익어간다. 대봉감의 달콤한 맛부터 백운산의 맑은 공기와 햇볕을 머금은 곶감의 깊은 풍미까지, 감이 익어가는 광양은 먹거리와 자연, 역사와 문화를 함께 만날 수 있는 가을 여행지다.

광양의 감은 제철 대봉감으로 끝나지 않는다. 백운산 자락에서 자란 밀시감과 대봉감은 맑은 공기와 햇볕 속에서 정성껏 건조돼 곶감으로 다시 태어난다. 고운 빛깔과 높은 당도,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는 광양곶감은 광양 9미(九味) 가운데 하나다.

제철 대봉감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진상면 일원에서 '맛있는 감! 광양 대봉감!'을 슬로건으로 제4회 광양대봉감축제가 열린다. 대봉감 즉석 경매와 먹기 대회, 가요제, 공연 등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하는 행사가 이어진다.

감의 달콤한 맛을 즐겼다면 늦가을 정취를 만날 차례다. 축제장에서 어치계곡까지 이어지는 약 16km 구간은 백운산의 깊은 산세와 계곡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드라이브 코스다. 내회교(橋) 인근에 차를 세우고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물이 어우러진 어치생태탐방로를 걸으면 구시폭포와 오로대 등 자연이 빚은 숨은 명소가 기다린다. 한가롭게 걷고 싶다면 백운산둘레길 제4코스 '백학동 감꽃길'이 있다. 광양매화마을에서 백학동 마을까지 이어지는 7.2km 구간으로, 걷는 데 약 2시간 30분이 걸린다. 곳곳에 감이 주렁주렁 열린 풍경을 감상하며, 잔잔한 수어호와 학이 날개를 펼친 듯한 억불봉의 산세를 함께 만난다. /이유빈 기자

농관원 곡성·구례, 2026년산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검사 시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곡성·구례사무소(사무소장 이정화, 이하 농관원 곡성·구례사무소)는 11월 4일 곡성군을 시작으로 12월말까지 곡성군·구례군 41개 검사장에서 2026년산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 검사물량은 5,382톤(조곡 기준)으로 곡성군은 3,479톤(일반벼 2,237톤, 친환경벼 743톤, 가루쌀벼 499톤), 구례군은 1,903톤(일반벼 1,328톤, 친환경벼 575톤)이다. 매입품종은 곡성군은 새청무, 신동진, 바로미2이며, 구례군은 새청무만 해당된다.

농관원 곡성·구례사무소는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검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검사관 7명에 대하여 농산물 검사관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매입 검사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벼 품위 점검도 실시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공공비축 포대벼를 출하하는 농가는 출하곡의 수분함량을 13~15.0%로 유지하고, 헌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등 출하 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특히, 매입 대상 품종을 사전에 확인하여 지정 품종 외의 벼가 출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농관원 곡성·구례사무소장은 "공공비축미곡 매입검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농업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매입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검사는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정부의 식량 비축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일규 기자

구례군, 아이쿱생협 경영위기 극복 위해 적극 협력 나서

구례군은 지난 5일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아이쿱생협과 간담회를 열고 경영위기 상황과 구례자연드림파크 정상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장길선 구례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 20여 명과 아이쿱 법인 대표 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아이쿱생협의 경영 상황과 구례자연드림파크 운영상 어려움을 공유하고, 시설 정상화를 위한 주요 현안과 구례군의 지원·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구례군에 따르면 최근 아이쿱생협은 조합원 차입금 상환과 물품 납품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구례자연드림파크 내 일부 생산 시설 가동이 축소되고 근로자 퇴사가 이어지는 등 지역 고용과 경제에도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군은 관련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30일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아이쿱생협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에는 8개 부서가 참여해 경영위기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 가능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오귀복 ㈜자연드림 대표는 "전국 20여만 명의 생협 회원과 생산자들이 힘을 모아 구례자연드림파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구례자연드림파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례군은 아이쿱생협과 협력해 경영위기를 점검하고 지역경제와 고용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선섭 기자

